



겨울철 전력수급 차질없이 관리 중

- 전력 핵심설비 점검, 연료수급 상황 등 종합점검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과 원전 최대가동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주 폭설과 한파가 발생했지만, 최대수요는 90.7GW로, 2021년 겨울철 최대수요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원전 최대가동(23기 가동 중) 등으로 공급능력이 충분해 한겨울 임에도 예비력은 20GW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덜 추운 겨울*로 난방용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12월 SMP**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 12월 월평균 기온은 1.8℃로, 평년(1.1℃)대비 0.7℃ 높음 (기상청, 월간 기후분석 24년 12월호)

** 월평균 SMP : ('22.12월) 267.55원 → ('23.12월) 131.05원 → ('24.12월) 116.58원

<겨울철 최대수요 실적 (단위:GW)>

일자	최대수요	예비력	예비율	비고
'21.12.27(월)	90.7 (17시)	12.8	14.2%	
'22.12.23(금)	94.5 (11시)	11.1	11.8%	역대 겨울철 최고
'23.12.21(목)	91.6 (10시)	13.7	14.9%	
'25.1.9(목)	90.7 (17시)	20.8	23.0%	올겨울 실적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긴장을 놓지 말고 에너지 수급과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수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수급 상황과 핵심설비 관리 현황뿐 아니라 최근의 환율 상승이 연료 수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폈다. 발전공기업과 한국전력공사는 주기적인 설비점검과 직원안전 관리 등 위기관리 상황을 보고했으며, 가스공사는 최근 환율상승·이상기후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계약을 통해 물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당분간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보고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과 함께 설비점검, 연료 적기도입, 기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자리에 모인 기관장들에게 겨울철에도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행사 개요

- (일시) '25. 1. 16.(木) 10:00 ~ 10:50 (50분)
- (장소) 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참석자(안)
 - (정부) 장관님, 전력정책관, 전력산업과장
 - (유관기관) 발전 5사, 한수원, 한전, 가스공사, 전력거래소 등

2. 세부일정(안)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순 서	비 고
10:00 - 10:26	`26	겨울철 전력수급 점검 회의	
10:00 - 10:03	`3	■ 모두 발언	장관님
10:03 - 10:23	`20	■ 기관별 발표 ① 겨울철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② 전력 핵심설비 관리현황 ③ 연료수급 동향 ■ 토 론	
10:23 - 10:26	`3	■ 마무리 발언	장관님
10:26 - 10:30	`4	기념촬영 및 환송	
10:30 - 10:50	`20	발전소 설비 현장 시찰	

3. 홍보 : 보도자료 및 현장 사진 배포 (1.16.木 석간)